

10. 선교사 멤버케어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How and Where Is Missionary Member Care Don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선교사 멤버케어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짧게 답하자면 거의 어느 곳에서나 이뤄지고 있고, 끊임 없이 증가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경 시대에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는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면하여 대화하거나 편지를 쓰는, 혹은 두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특별히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기술 변화는 선교사 멤버케어가 거의 즉시 제공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 주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성경 시대 In the Bible

성경 시대 이후 Since Bible times

소통 Communication

운송: 화물, 통화, 사람 Transportation: Cargo, currency, and people

원격 의료 Telehealth

원격 심리학 Telepsychology

더 세부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으세요.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한 “어디서”와 “어떻게”의 질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함께 생각해야 한다.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옵션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 특별히 운송수단과 통신에 관한 기술 발달로, 선교사 멤버케어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폭 넓은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는 먼저 성경 시대에 사용되었던 멤버케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가능한 멤버케어로 나아가고자 한다.

성경 시대 In the Bible

바울에 대한 선교사 멤버케어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도가 도착했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보내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고린도전서 16:17-19). 고린도 교회는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 바울에게 직접 세명의 사람을 보냈고, 바울은 그들이 돌아갈 때 답례의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다.

또한 예루살렘 본교회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그들의 결정을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생각해보라.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의논한 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다음의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교회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편지에 실린 격려의 말을 읽고 기뻐하였다”(사도행전 15:22-31).

의사소통과 멤버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세가지 방법이 있었음을 주목하라.

- 대면 대화: 스테바나스(Stephanas), 바울, 그들과 함께 갔던 다른 이들의 경우
- 편지 쓰기: 고린도전서의 경우나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을 전했던 방법
- 사람을 보내서 편지나 결정을 전달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방법

성경 시대 이후 Since Bible times

18 세기 말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가족과 함께 영국을 떠나 인도의 선교사로 갔을 때까지도 교통과 통신에 관해서는 성경시대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그들은 배를 타고, 심지어 보급품을 받기 위해 멈추는 일도 없이 거의 5 개월을 항해했다. 영국에 있는 본부에 물품 하나를 요청하려면 배로 편지를 배달했기에 몇 달이 걸렸고 본부 사무실로부터 구호 물품이 오는 데 배가 다시 인도로 항해해야 했기에 또 다시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세기도 못 되어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 세기 말에 증기 기관이 발명되었고 선박들이 더 이상 바람과 바다의 기후 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데까지 발전했다. 기관차는 대륙을 가로질러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나를 수 있었다. 게다가 전화, 전보도 개발되어 통신이 대륙을 횡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도 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20 세기 말 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 단 하루만에 전 세계의 반을 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일주에 7 일, 하루 24 시간, 무료로 전자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한 필요를 위해 드러진 헌금은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세계 거의 모든 곳으로 즉시 전송되었다. 지금은 세계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멤버케어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에 열거한 것은 멤버케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다.

소통 Communication

기술의 발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 만큼이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 주었다.

- **우편(Mail).** 지상 교통을 이용하는 우편이나 항공 우편 둘 다 이 곳, 저 곳으로 서류 원본을 배달해준다. 우체국 제도와 항공 우편을 통해 어떤 우편물들은 18 세기에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때보다 더 안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종이에 글자만 적힌 서류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전화와 팩스(Telephone and Fax).** 전화 통화는 서로 들을 수 말로 대화를 함으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호들도 알 수 있고 즉각적인 대답도 가능하다. 하지만, 팩스로 보내지 않는 한 기록된 문서로 남지 않는다.
- **이메일(Email).** 이메일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무료이며 신속하고, 글로 남는 문서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보내진 메시지가 수신자의 메일함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안 열린 채로 있을 수 있어 “대화”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ing).** 인스턴트 메세지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에게 무료이고 빠르며, 대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컴퓨터 앞에 있어야 하고 또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 신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스카이프(Skype).** 스카이프 역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무료이고 빠르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음성 뿐 아니라 (양쪽 모두 통신 신호가 좋다면) 영상도 가능하여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호들과 또한 상대방의 “주변 환경”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룹” 대화도 선택할 수 있다.
- **아직 발명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 반 세기 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위에 묘사된 것들은 공상과학소설의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발명되어 멤버케어와 연관될 지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체계는 선교사 멤버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 더 많은 옵션들을 제공한다. 더이상 선교사와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가 같은 대륙에 있지 않아도 된다. 물론 소요 시간, 소요 비용, 혹은 사람이 개입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의 요소들은 언제나 주요 사안으로 대두된다. 더불어 나중의 챕터에서 다룰 법률적, 윤리적 이슈들도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심각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선교사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전화 통화보다 사람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과학 기술로 인해 하루만에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아니면 해당 선교 국가 누군가에게 몇 분 안에 연락할 수도 있다.

운송: 화물, 통화, 사람 Transportation: Cargo, currency, and people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사람, 현금, 그리고 물건들을 하루만에, 심지어 꼭 필요하다면 하루도 안 걸려서, 지구 반대편까지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엄청 들것이다. 만일 선교사가 일주일만 기다릴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배송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보낼 수 있다.

선교사들이 어떤 기계 부품이 필요할 때 보통 주문을 해서 바로 항공편으로 해당 국가로 배송이 가능하다. 혹시 필요한 물품이 본사에 있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 바로 그 다음날까지 항공편으로 배송이 가능하고,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선교사들이 인적 케어가 필요하다면, 비행기 좌석만 있다면 멤버 케어 제공자가 24 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도착할 수 있다. 공항 근처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집에서 20 분 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떠나 25 시간 후면 12 개의 시간대만큼 떨어진 곳에 도착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돈이 필요할 때, 큰 금액이면 본부에서 바로 몇시간 이내에 송금할 수 있다. 작은 액수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선교사의 본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ATM 기기에서 바로 그 나라 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런 현재 상황과 바울(Paul)이 응원이 필요해서 그를 위해 현금을 걷던 성경 시대와는 얼마나 다른가. 고린도 교회가 현금을 보냈을 때 스테바나(Stephanas) 혹은 디도(Titus)가 바울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수 주 혹은 수 개월이 걸렸던 것이다.

원격 의료 Telehealth

원격의료는 오늘날 가능해진 것으로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이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처럼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상담이나 의료 케어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아래의 인터넷 링크는 원격의료 전 분야에 대한 개요를 잘 설명해주고 원격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많은 링크들을 제공한다. - <http://en.wikipedia.org/wiki/Telemedicine>. 다음 기사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예방의학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http://en.wikipedia.org/wiki/Telehealth>. 미국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원격의료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hrsa.gov/ruralhealth/about/telehealth/>. 이 웹페이지에서 “Telehealth Toolbox”를 클릭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정리된 글을 꼭 챙겨보라.

원격의료는 원격정신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료 분야를 포함한다. “원격”이라는 접두사는 실제 모든 정신 건강 분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원격”을 치면 각 분야에 대한 인터넷 링크 리스트가 뜬다. 원격상담, 원격심리학, 원격심리치료, 원격목회상담 등등. 독자들은 개인적인 훈련을 위해 이런 것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나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원격 심리학에 대한 몇 가지 링크들을 찾아보았다.

원격 심리학 Telepsychology

미국 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는 *심리학의 모니터(Monitor on Psychology)*라는 월간지를 모든 APA 멤버들에게 보낸다. 아래에 지난 4 년 동안 *심리학의 모니터*에 실린 원격심리학 관련 자료를 소개 한다.

- “원격심리학이 대두되고 있다”
<http://www.apa.org/monitor/2010/03/telepsychology.aspx>
-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강조: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시대를 앞서 가며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http://www.apa.org/monitor/2011/06/telehealth.aspx>
-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에 든 비용을 돌려 주고 있다”
<http://www.apa.org/monitor/2012/07-08/telehealth.aspx>
- “연구에 의하면 전화 치료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장애에 효과가 있다”
<http://www.apa.org/monitor/2013/01/phone-therapy.aspx>

추가적으로, 2012년 7월 27일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원격심리학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자료로 배포하였다. 18 페이지에 이르는 이 서류의 복사본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apacustomout.apa.org/commentcentral/commentcentralPDF/Site26_Telepsychology%20Guidelines%20Draft_July2012_posted.pdf

전문적인 기준 외에도,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그들이 속한 주와 나라의 법과 각 선교사들이 섬기는 주와 나라에 대한 법과 선교사들이 섬기는 주와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켄터키 주에 살고 있고, 이 곳의 “원격의료와 원격심리학”에 대한 법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http://www.lrc.ky.gov/kar/201/026/310.htm>.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의 법을 알아내는 것과 (보통은 쉬운)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법을 알아내는 것 (보통은 좀 어려운) 모두 멤버케어 제공자가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신 건강 훈련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다른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건강*에 발표된 “원격심리학과 원격의료: 테크놀로지 환경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는 60 페이지분 기사를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mentalhealthacademy.com.au/journal_archive/cpho817.pdf. 또한

“심리치료사, 상담사, 결혼/가족 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자료와 업데이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zurinstitute.com/telehealthresources.html>.

This new technology provides new possibilities for providing missionary member care. However, it also produces new pitfalls which we must be careful to avoid.

이러한 새 기술체계는 선교사 멤버케어를 제공하는데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함정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 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선교사 멤버케어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역자주. 한국어로는 anmcusa@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